

“가공센터서 농산물 부가가치 높이세요”

장성군 농업인 이용 독려 가공장비 58종 68점 갖춰 주스·잼·조청·분말 등 제조

장성군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립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 주목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6년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안에 497㎡ 규모의 해협(HACCP·원재료 생산부터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식품에 위해요소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인증 기준 시설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세웠다.

농기센터는 주스와 잼, 조청, 과립, 분말, 환, 건제품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설비 규모도 당초 53종 62점의 가공장비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8종 68점으로 확대됐다.

가공 생산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농업인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연구원들이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주스와 잼 등 일반적인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식생활 변화와 참살이(웰빙)를 추구하는 추세를 반영해 제품군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농기센터의 설명이다.

실제로 황룡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박래일씨는 수경재배로 키운 새싹보리를 농산

물가공지원센터 가공기로 건조·분쇄·반죽해 과립 제품을 만들고 있다.

새싹보리는 폴리코사놀·베타카로틴·칼륨·칼슘 등 생리활성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해 최근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칼륨(K)의 경우 우유보다 55배

이상 많이 들어 있으며 빈혈을 방지하는 철(Fe)도 시금치보다 다섯 배 가까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기센터 역시 농업인 문판길씨와 함께 발효생강을 이용한 조청 개발에 성공해 제품 생산·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개발에 참여한 문씨는 “발효한 생강에는 진저롤을 비롯한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발효생강 조청을 구상하게 됐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정개발한 조청당화 기술로 당화(녹말 등 무미한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감미가 있는 당으로 바꾸는 과정)와 착즙, 진공농축, 포장 등의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23개 농가에서 20여개 품목을 생산했다”면서 “생리활성물질과 약리성을 증대를 통한 생산제품 차별화에 목표를 두고 가공기술 정립과 생산 공정 표준화에 노력하는 만큼 농업 외 소득을 올리길 바라는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관계자들이 수만리 철쭉단지에서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수만리 철쭉단지 생육환경 개선

화순군이 남도의 ‘알프스’로 불리는 수만리 철쭉단지의 생육 환경 정비를 위해 적극 나선다.

수만리에 조성된 철쭉단지는 2006년 3월 화순읍 만연폭포에서부터 수만리와 큰재 등 도로를 따라 약 8km 경사면에 영산홍과 자산홍 등 6개 품종 100만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매년 봄철이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워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나들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꽃이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개화가 부진하다는 의견이 많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심어진 철쭉은 수령 20년생 내외로

노령화 돼 생리적인 활력이 떨어져 꽃을 화려하게 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품종도 여러 품종이 혼재되어 있어 꽃피는 시기가 달라 일제히 꽃피는 모습을 느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수만리 철쭉단지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여명의 전문 작업단을 꾸려 정정 작업을 조기에 실시하고 병해충방제 등 각종 피해를 예방을 위한 작업을 병행해 봄나들이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심어진 철쭉은 수령 20년생 내외로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대학생 재능나눔 캠프 장성군 공모사업 선정 7월 3~6일 봉사활동

장성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재능나눔 봉사단이 출동한다.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8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대학생들에게 농촌 거주자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도시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 유치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장성군을 찾는 이들은 전국 15개 대학교 동아리의 회원과 다솜동지복지재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7월 3~6일 활동면 오루 스토리 캠프장 일원에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하며 집중 봉사활동을 벌인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남산공원 메밀꽃 만개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에 관광용 메밀꽃단지가 조성돼 순백의 꽃송이가 멋진 경관을 이루내고 있다. 메밀꽃은 통상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피어 이 기간 이곳을 찾으면 메밀꽃이 연출하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3개마을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4월 용역 발주...산업부와 협의중

화순군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천면 모산1·2리와 금천리 등 3개마을 56만283㎡를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급격히 쇠퇴해가는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순군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지구 지정을 위

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

화순군은 6월 말까지 전남도의 지역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광진흥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폐광진흥지구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화순에서 폐광이 가장 넓은 한천면으로 주민

들의 생활 불편과 소득불균형이 심각했다. 이번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화순군수 권한대행은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창평 한재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들이 한복을 갖춰입고 선비체험을 하며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청소년들 “향교·서원서 인성 키워요”

11월까지 선비체험·예절교육

“향교와 서원에서 전통 예절 배워요.” 담양군이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교육·문화 체험행사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선비체험과 사자소학 등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군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18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평향교 은행나무학교 주관

으로 한재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50여명이 선비체험과 다도 및 예절교육, 사자소학 교육 등을 하며 선현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기본으로 타인 배려하기와 효(孝)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재 가치를 새롭게 알고 올바른 인성함양과 효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rg@kwangju.co.kr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